

정 상 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폐 포장지 캐스팅을 통해 본 현대사회의 단면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 전공

안 미 옥

패 포장지 캐스팅을 통해 본 현대사회의 단면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 상 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 전공

안 미 옥

인 준 서

안미옥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3년부터 제작한 본인의 작품 중에 2004년 석사학위 청구전에 전시하였던 폐 포장지 펄프 캐스팅 작품 ‘ ’연작을 중심으로 이 작품들에 나타난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사회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문화에서 파생되는 폐 포장지를 종이 캐스팅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은 바쁘게 자식들의 일상적 삶을 살면서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푸드를 소비한다. 현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패스트푸드의 편리함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으며 또한 그 신속함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본인은 이러한 편리함과 신속함 등 현대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회용품과 폐 포장지에 주목하였다. 특히 폐 포장지 표면에 인쇄된 상품의 화려함과 각종 문구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본인은 펄프 캐스팅 작품의 재료로 사용된 폐 포장지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상징체로 보았으며, 특히 폐 포장지를 작게 자르고 고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각종 일회성 용품들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폐품의 용도를 다시 살려서 활용하는 물질의 리사이클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현대성의 어두운 부분을 상징하는 폐 포장지 그 자체가 폐휴지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화 함으로써 자기반성적 태도를 강조하고자 하였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의 캐스팅 작품은 종이로 떠내어진 쓰레기통의 형식을 취하므로 우선 소재로서 종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판화에 있어서 paper-making과 미술 전반에서 종이 지닌 예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 폐 포장지와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의 관계와 패스트푸드 점에서의 폐 포장지를 도입하게 된 동기로서 현대성의 특징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폐 포장지를 사용하여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작품 과정에서 물성의 변화와 반복되어 나타난 쓰레기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에 있어서 폐 포장지의 리사이클링과 관련하여 사용된 종이 캐스팅 방법과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조형성과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작품목차

I. 서론	1
II. 작품 내용적 측면 연구	3
1. 소재로서의 종이	3
2.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속의 폐 포장지	7
3. 물성(物性)변화와 오브제의 반복	10
III. 작품의 조형적 측면 연구	13
1. 폐 포장지의 리사이클링	13
2. 펄프캐스팅	14
IV. 작품 분석	17
V. 결론	27

작품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 3】 ‘ ’-other 50×50cm Paper Casting 2004	17-18
【작품 4 - 10】 ‘ ’-other 48×52cm Paper Casting 2004	19-21
【작품 11 -12】 ‘ ’-cup 6.5×12.5cm Paper Casting 2004	25

I. 서론

라곤(M.Ragon)은 “폐품 문화는 도시의 예술이다. 그 원천은 소멸되어 가는 것들 속에 있다. 찻장, 다락방, 쓰레기통, 웅덩이 등에서 발견되는 버림받은 물체들 속에 있다. 그러나 이들 물체들에는 역사가 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어느 누구의 손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재료들의 사용은 관객에게 생활의 단편, 환경의 단편으로서 어필해 온다. 도시환경은 그것이 변형된 것이건 또는 버림받은 것이건, 이들 사물의 원천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본인은 바쁘고 반복되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등장하게 된 각종 패스트푸드점의 화려함과 편리함 그리고 대량생산 소비되는 각종 문구와 이미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현대사회에서 버려진 폐 포장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폐 포장지를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표현하였다. 폐 포장지는 그 자체의 속성으로 보아 현대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폐 포장지를 잘게 자르고 녹여서 도시의 오물을 담은 쓰레기통의 모습으로 만든다. 그것은 현대성의 특징인 일회성, 편리성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태도이며 동시에 물성의 환원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내용적 측면으로 우선 소재로서의 종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종이로 떠내어진 캐스팅 작품에서 재료로 사용된 수제종이는 종이가 갖는 기본적인 기록매체에서가 아닌 예술 소재로서의 종이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폐 포장지를 본인이 어렸을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결부시켜 현대사회의 단면의 특징을 논할 것이다.

본 논문의 조형적인 측면으로는 오브제를 떠내어진 쓰레기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리사이클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작품제작 상 거론될 수 있는 펄프 캐스팅의 기법과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인은 본 작품 연구 논문에서 펄프 캐스팅으로써 관화 특성을 살린 일련의 작업들의 제작 의도와 궁극적인 배경을 분석하여 작업 특성과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작가로서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확고히 설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작품의 내용적 측면 연구

현대미술은 많은 매체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며 장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판화 역시 고전적인 판화 개념에서 벗어나 판화가 조각이나 또 다른 첨단 미디어 매체와 가까워지면서 기법과 표현방법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판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 함은 하나의 판(版:plate), 또는 여러 개의 판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제작하여 다른 표면에 옮기어 개체의 에디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본인은 판화적 특성으로 캐스팅(Casting)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판화의 특성을 가지고 '판(版:plate)'의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찾고자 하였다.

1. 소재로서의 종이

종이는 인류가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록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papyrus)¹⁾나 중동지방의 양피지(佯皮祗)²⁾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는가는 아직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채륜이 발명한 제지술이 언제 전파되었는지도 분명치 않고 다만 후한말 낙랑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종지와 종이 만드는 법이 들어 왔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1400여 년 전 고구려의 승려 담징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종이는 인류 문화를 촉진하는 매개 수단으로써 기록과 전달 그리고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문명사회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만큼 평범할 수밖에 없는 매체로 어찌면 가장 중요한 매체의 하나이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관심 밖에 존재해 있었던 사물이었는지도 모른다. 1798년 니콜라스 루이스 로버트

1) 파피루스(papyrus):사초과의 다년초로 지중해 연안과 이집트 나일강 유역 습지에서 무리지어 자생, 줄기의 높이는 1-2m 둔한 삼각형이며 질은 녹색으로 마디가 없다. 잎은 퇴화하여 비늘처럼 되고 줄기의 밑부분에 달린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줄기를 얇게 저며서 가로·세로로 맞추어 놓고 끈기가 있는 액체를 발라서 강하게 압착시킨 후, 잘 건조시켜 기록하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파피루스는 단순히 식물의 내피를 가공하여 만든것이라 하여 후세에 발명된 제지 기술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종이의 기원이라 볼 수 없다.

2) 양피지(佯皮祗):벨럼(valum)이라고도 한다. BC190년경, 페르가몬왕 에우메네스 2세에 의해 발명. 특징은 파피루스나 초기의 종이에 비해 견고하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나 값이 비싸고 부피가 크며 무겁다. 따라서 뛰어난 종이의 제조가 시작되고부터 양피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다.

(Nicolas Louis Robert)가 제지기계를 처음 발명하였다. 이후 제지 공정은 기계에 의존한 대량생산 체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종이의 갑작스런 양적 증가와 급속한 발전은 상호간에 촉매작용을 해왔고, 제지공정의 기계화와 나무 펄프종이의 발달, 사진 복사, 컴퓨터의 인쇄물 등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종이의 사용은 현대사회에서 종이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었다.

종이는 오늘날 대량생산과 기계화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상품들은 결과적으로 인간미를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가들이 직접 종이를 제조하거나 수지에 관심을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현대 papermaking은 예술작업에 형이하학적인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현대미술이 논리적 개념에 매이는 경향에서 환원시켰다.

종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회화운동의 하나였던 입체파의 파피에-콜레(papier colles)³⁾와 같은 시도로 이는 종이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악보나 인쇄물 조각을 화면 위에 직접 표현함으로써 적극적 표현 재료로서 종이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 배경은 오브제의 개념으로 미술 표현을 위해

3)파피에-콜레(Papier Colles):17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트롱프뢰유의 화법을 채택한 것으로 1920년 다다의 전시회나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에른스트가 창안한 콜라주기법에서 집약되었다.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화면에 직접 등장시킬 수 있다는 재료에 대한 개방 의식이었다. 60년대 미술인 팝아트(Pop Art), 그 이후 70년대의 미니멀 아트(Minimal Art) 및 개념미술(Conceptual Art)의 운동들은 소재·재료의 해방 또는 예술의 우연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종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신적 배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urg), 데이빗 호크니 (David Hockney), 매뉴얼 네리 (Manual Neri), 케네스 놀랜드 (Kenneth Noland) 등의 작가들은 종이를 이미지화하기 위한 많은 정신적인 물질로서 수제지 제작(Paper-making)의 재출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표현 재료로서 종이에 대한 역할의 폭이 넓어져 재료의 영역을 초월하려는 시도까지 출현하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기성품. 완제품의 종이들을 재료로 선택하지 않고, 종이 생성 과정의 원시적 측면에 매료되어 직접 종이 제조에 참여하고 수공제지의 독특한 예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종이는 예술매체로서 뿐 아니라 예술표현 자체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종이는 현대미술에서 피상적 도구의 역할만이 아닌 예술매체로 등장하여 현대미술의 확대와 함께 재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2.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 속의 패 포장지

‘침밀밀’이란 영화에서 시골에서 홍콩으로 상경한 소군이 고향에서 는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맥도날드에 갔던 장면이 있다. 본인이 어렸을 적 가까운 도시에서 처음 접하는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잔뜩 긴장을 하며 들어갔던 기억...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른다. 유리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난 큰 음악 소리가 나오 고 있었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공기를 느끼며 걸어 들어가면 교육을 잘 받은 상냥한 직원이 있다. 줄을 선 다음 차례가 오면, 계산대 뒤로 보이는 총천연색 사진을 살피며 주문을 한 뒤 패스트푸드 담게 얼마 걸리지 않아 화려한 종이로 포장된 음식이 잔뜩 담긴 쟁반을 건네받았던 기억이 있다. 소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가 줄을 서고,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한다. 그리고 청소하는 이요에게 “내가 살던 곳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라며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포장지를 가져가도 되겠냐며 물었던 장면이 있다. 소군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것 아닐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거나 저런 걸 왜 가져오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과 유사하기에 본인은 이 장면들로 하여금 패스트푸드가 현대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지금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사는 이런 과정은

너무나 일상적이게 되었지만, 누구나 처음 접하는 장소나 낯선 물건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본인은 외국에서 판매하는 햄버거와 한국에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래서 케찹이 잔뜩 묻어 있던 포장지건 화려한 색으로 코팅된 큰 종이컵, 셋트메뉴를 먹으면 주었던 장난감들을 본인은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렸을적에는 본인 주변에서는 외국 상품들을 흔하게 보지 못했고 외국 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도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도시에서의 경험 더 나아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문화 경험 따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본인도 모르게 음식이 나오는 속도나, 크고 빠른 음악에 음식 속도를 같이하게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속도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체제로 시간이 더할수록 속도를 강조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요구하며 속도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현대문명과 현대사회는 패스트푸드점의 작은 곳에서부터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거나 싸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대량생산과 간편함, 편리함 등을 알 수 있었다. 포장지야 말로 현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고 말았다.

현대의 모든 상품은 포장되어 나온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첫인상을 우리는 포장지에서 찾기도 한다. 그래서 그만큼 포장은 상품 이상으로 매혹적이다. 본인은 이러한 이유로 제품을 썼던 포장지와 리본, 상자와 그 상자나 봉투에 붙어 있던 스티커까지 모았던 적도 있다.

제품을 싼다(wrapping)는 기능이 포장의 기본적 기능이고 근본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초적인 포장 방법은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변화하고 발달하였다.

인류 초기의 포장은 일상생활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분배하며, 이를 담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량생산, 대량 소비를 가져왔고, 특히 셀프 시스템, 자동판매기의 보급 등에 의한 원웨이(1회용, 쓰고 버림) 포장 용기가 증가함으로써 소비문화를 대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생산량의 증가는 소비를 촉진시켰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일종의 미덕인 사회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업 생산품들은 문화와 일상에 더욱 침투하게 되었고,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에서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와 폐물 더미가 도시 사회의 새로운 현실로 전개되었다.

본인은 바쁘고 반복되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등장하게 된

각종 패스트푸드점의 화려함과 편리함 그리고 대량생산되는 각종 문구와 이미지로 대표되는 폐 포장지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주제 의식 속에서 이용되고 사물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과 상상력을 통해 주어진 것을 새롭게 조형하고 재구성하는데 의의를 갖는 것이다.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3. 물성(物性)변화와 오브제의 반복

흔히 대상의 의미를 지니는 오브제는 현대미술에 있어서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감지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과 주체가 인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⁵⁾

물성은 어원적으로 라틴어의 'Objectum'에서 유래된 것으로 물건·물체·객체 등의 뜻을 지닌다. 사전에 의하면 물성 사고되어진 것, 사고하는 존재와 주체에 대립하는 물성을 하며, 이것은 갖가지 소재를 이용하여 작가에 의해 조형화되는 물성 혹은 작가에 의해 선택되어진 물체인 것이다. 물성은 단순히 물체로서의 실제적인 형태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의식의 객관화에 의해 표현된

4) 최병기, 「현대미술 구조론」(서울: 승례문, 1990) p.437

5)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 개념」(서울: 재원사, 1995) p.186

다는 것이다.

물체와 이미지 사이에 인습적, 관념적인 관계를 벗겨 버린 원초적인 상태를 말한다.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 내어 보는 사람에게 자제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의미한다.

“..모든 요소는 그 출처와 무관하게, 새로운 결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요소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작업을 수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작업의 다양한 파편들이 새로운 작업에 포함되는 데 전혀 한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인용’을 보존하려는 어리석음을 탈피할 때, 이러한 파편들의 의미를 적절한 방법으로 개조할 수 있다.” (Guy Debord)⁶⁾

본인이 가져온 모든 종지와 폐 포장지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던 물성(物性)을 다 잃어버린다. 본인의 이미지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포장지는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며, 떼내어진 쓰레기통 또한 쓰레기를 담지 못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버려질 쓰레기들이 그것을 담은 쓰레기통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사물들은 모두가 그 본래의 용도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오브제로 쓰일 때는 그러한 본래의 용도는 물론 의미까지도 박탈당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 사물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물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6) 김성원, 「월간미술」 2004년 6월호, p.86

본인의 형태적 특징을 갖는 쓰레기통은 평범하고 비개성적인 특성은 대중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체가 지닌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전체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개체적 인멸성을 지니면서도 반복에 의해 그 개체가 지닌 특성이 오히려 강조된다고 본다.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 특성을 찾아 작품으로 끌어내고자 한다.

반복해서 떠낸 쓰레기통은 동일성을 자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를 둔다. 반복해서 떠낸 쓰레기통은 똑같은 것의 복제의 차원을 벗어나 미묘한 차이에 의해 확실성을 상실한 다른 존재의 모습을 실현시켜주는 존재론적 입장을 지니기도 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는 폐 포장지로 리사이클(recycle)된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사회의 돌고 도는 순환적인 내용과 유사하다.

본인은 제작 과정에서 폐 포장지는 미립자 형태로 남게 되며, 폐물들을 담은 쓰레기통으로 변화시켜 반복적으로 떠내어진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도 이 반복이라는 삶의 논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복적으로 오브제의 틀을 제작하거나 오브제를 떠내는 과정에서 말리고 두들기는 반복행위를 한다. 매일 매일의 반복은 자칫 지루하고 단순한 듯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Ⅲ. 작품의 조형적 측면 연구

1. 폐 포장지의 리사이클링

20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구조는 새로운 예술을 유도하게 되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많아지면 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폐물 또한 많아졌다. 풍요의 이미지와 끝없는 소비는 종국적으로 공허함만을 가증시킨다. 풍부함이라는 것이 결국 낭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면 대량생산은 인간을 소모적인 존재로 만들 뿐이다. 이러한 폐물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모든 포장 용기도 내용물을 개봉하여 사용하는 순간 쓰레기가 된다. 그러나 본인의 작품에서는 쓰레기들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진다. 소모된 생산물로부터 자원을 재생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리사이클링(recycling)이라고 한다. 본인은 리사이클링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쿠르트 슈비터즈의 (Kurt Schwitters:1887~1948)<메르즈구조물(merz coastruction)>에 사용된 것들은 오래

된 나무 철망 판지 그 밖의 다른 재료들로서 버림받은 폐품들이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고, 남아 기능적으로도 사용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폐품들은 쿠르트 슈비터즈에 의해 재조립됨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자연에 의해 산적하기 시작한 생산 복제품과 그로부터 파생된 폐물들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무한하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물질문명에 대한 소리 없는 수용이 된다.

2. 펄프 캐스팅

펄프 캐스팅으로써 판화는 복제의 수용을 통제 일회성을 극복하는 예술 장르로 판화는 매체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서 매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완성체가 아니라, 매개 역할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판화는 판을 사용한 표현의 간접성의 추구와 이미지 생산의 복수성 일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수제종이를 통한 펄프 캐스팅은 본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펄프⁷⁾캐스팅이라 함은 예술에서 종이는 드로잉의 바탕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예술 재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종이

를 캐스팅하는 것이다. 섬유나 펄프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 하며, 많은 수량의 작품을 동시에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종이 작업 특성과 종이의 가역성을 적용한 표면 형태의 다양함을 살려, 평면, 부조, 입체 형태나 타재료와의 혼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보여준다.

캐스팅 방법으로는 발포 수지나 압축 수지를 잘라 붙이고, 인두로 지저서 원하는 모양의 역 부조 형을 만들어 두었다가 펄프로 형태를 떼내어 부조를 만들 수 있다.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파낸 부분의 아래쪽 면적이 위쪽보다 좁아야 종이 부조를 판에서 떼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물건이나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그 형태를 떼내는 작업

7) -펄프(pulpe) 원래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죽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압착 등의 방법에 의하여 탈수한 습윤물(濕潤物)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를 추출하여 모은 것을 말한다. 현재 이용되는 펄프의 원료로는 솜 과 같은 종모섬유(種毛纖維)와 대나무, 짚, 에스파르토, 베거스 등과 같은 벼과 식물의 줄기. 마닐라삼의 줄기. 대마, 아마, 닥, 삼아, 안피 등의 나무껍질과 나무의 가지나 잎을 제외한 줄기 등 매우 다양하다. 분류법에는 사용한 원료의 이름을 따서 분류하는 법과 제조법에 의하여 분류하는 법이 있다. 원료에 따른 분류로는 먼저 목재펄프와 비목재펄프로 구분하고, 목재펄프는 다시 침엽수펄프(NP)와 활엽수펄프(LP), 비목재펄프는 짚펄프(straw pulp), 버개스펄프, 갈대펄프, 대나무펄프, 인피섬유펄프, 닝마펄프, 면펄프 등으로 구분한다. -펄프의 원료: 일반적으로 펄프라고 하면 대부분 목재펄프를 말하는 것이며, 펄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는 수지의 함량이 적으면서 섬유의 길이가 길고 밀도가 낮은 가문비나무속을 사용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목재 부족으로 인하여 적송, 흑송 등도 이용하게 되었으며, 1956년경부터 각종 활엽수의 사용기술이 개발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펄프의 증산을 위하여 목재 가공공자의 폐재와 임지의 산재까지 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을 할 수 있다. 실물 부조는 물건을 발 뿔 구성하여 펄프를 엮어 떠내는 작업이다. 안쪽은 음각이 되어 나타나고 표면은 약간 부정확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 콤푸레셔로 뽑아 큰 틀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본인은 쓰레기통을 석고로 떠내어 그 위에 본인이 만든 수제종이를 석고 틀 위에 엮어 두들겨 가며 형태를 떠내었다. 여기에서 떠내어진 펄프에서 보이는 폐 포장지는 현대사회를 대변해 주는 아이콘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철제 쓰레기통을 폐 포장지를 재료로 떠냄으로써 쓰레기통이 갖는 차가움, 공장에서 기계로 떠낸 듯한 느낌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수제종이 매력일 것이다. 독특한 질감은 독창성, 장식성, 고부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수제종이를 존재하도록 만든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 중에서 수제종이는 재료로서의 인식에서 재료적 의미가 아닌 제작의 의미가 강조되기도 한다.

IV. 작품 분석



【작품1】 ‘ ’-other 50x50cm papercasting 2004



【작품 2.3】 ‘ ’-other 50x50cm papercasting 2004



【작품 4】 ‘ ’-other 50x50cm papercasting 2004



【작품 5.6】 ‘ ’-other 50x50cm papercasting 2004



【작품7.8.9.10】 ‘ ’-other 50x50cm papercasting 2004

【작품 1 - 3】 ‘ ’-other

【작품 4 - 10】 ‘ ’-other

재료: 햄버거 패 포장지, 펄프, 신문, 황토

크기: 50×50 cm

48×52 cm

설치미술의 의미는 사물을 어느 곳에 설치 배치한다는 말을 곧 오브제의 활용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설치미술이 오브제의 연장선상에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양자의 밀접한 관계는 결국 공간에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브제도 그 어떤 공간 속에 놓여지는 것이지만 그 공간이 단순히 소여(所與)로서의 공간이며 오브제가 그 자체로서 공간에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장(場:Field)’이라고 부른다. 오브제는 항상 공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장’과의 관계에서 파악되고 또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⁸⁾

본인 작품은 설치 작업으로 화랑이라는 전시 공간과 확장된 종합적인 공간으로 형성해 나간다. 공간에서 반복되는 형식은 특징이 부각된 모습을 나타내는 대신 화면 전체를 골고루 바라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설치 방법은 관람자로 하여금 해석적으로 인식하게 하기보다는 조형적인 리듬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 작품의 메시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설치 작업은 시각적으

8) 이일, [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서울: 열화당, 1991) p.243

로 일관된 환경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작품들 간의 유기적인 접목이 가능한 장치들이다. 동일한 형태의 쓰레기통들은 쌓는 형식과 눕히거나 겹치는 형식으로 벽의 그림자를 통해 하나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게 되어 리듬이 생기기도 한다. 시각적으로 힘의 강 약 효과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천장에 쓰레기통 뚜껑을 낚시 줄로 매달아 열려 있는 뚜껑들을 통해 일률적인 패턴을 깨어 보고자 하였다.

떠내어진 쓰레기통들은 주로 패스트푸드점의 폐 포장지를 사용하였다.

쓰레기통에서 보여지는 각종 문구들과 브랜드는 패스트푸드점의 스피드와 대량생산되어지고 대량 소비되어지는 현대사회를 대변해 주는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구매욕을 북돋움으로써 점포내로 손님을 유도하는 브랜드로 하나의 기업, 광고, 쇼윈도를 사슬처럼 거의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서 소비의 집합적인 모습이 된다. 소비자를 보다 복잡한 일련의 동기로 유도하면서 서로에게는 보다 복잡한 표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같은 형태나 내용에서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까지 주기 위해서 대량생산되어 배포되는 신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신문지와 황토의 사용으로 폐 포장지에서 나오는 색의 뚜렷함 보다는 오묘한 이미지를 가져왔고, 쓰레기통이 기계에

서 떠나어진 느낌을 배제하기 위해 데클(dacle)을 사용하여 자연스런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다.

종이는 물에 젖으면 약해지고 오래 되면 먼지가 끼는 단점이 있으나 건조된 종이는 훨씬 더 강해진다.

종이의 활용을 통해 객체와 주체,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종이 자체의 찢어지고 흡수된다는 성질을 이용, 단순한 감각적 재질에 머물기 보다는 어떤 표현성의 결과이기를 원한다.



【작품 11-12】 ‘ ’-cup 6.5×12.5cm papercasting 2004

【작품 11-12】 ‘ ’-cup

재료: 일회용 종이컵, 패스트푸드점의 폐 포장지

크기: 6.5×12.5cm

일회용 종이컵을 리사이클링한 작업이다. 불투명 종이컵이 투명컵을 석고로 떠낸 틀 위에 부어진다. 다시 불투명 컵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 외형은 테크아웃의 투명 컵이고 재질은 일회용 종이컵인 것이다. 사물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료나 크기, 색깔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사물 그 자체보다 사물이 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전시 공간을 이용한 설치 방법으로 4개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꿈틀대며 나오는 듯한 형상을 만들하고자 하였다. 반쪽 캐스팅 또한 시각적인 이미지로만 쌓거나 겹침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V. 결 론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술가는 시각적으로 내용을 표현하고자 제시한다.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 표현 된 것으로 객관적이 형식에 의해 형상을 나타내는 과정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대상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새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누구나 알기 쉬운 대상을 가져와 형상을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인 작품은 본인이 겪었던 패스트푸드점에서 겪었던 경험과 느낌을 폐 포장지를 통해 현대사회의 단면들을 나타내었다. 바쁘고 반복되는 현대사회에서 편리함과 대량생산·소비 그리고 일회성과 편리성·신속함·포장지 표면에 인쇄된 상표의 화려함과 각종 문구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형태가 가지는 속성과 의미를 변화시켜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것을 담은 쓰레기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통들은 시각적인 이미지들로만 남게 된다.

필프 캐스팅을 이용한 작품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로는 표면이 매끄러운 쓰레기통으로만 보여지게 되어 큰 시각적인 변화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색의 변화로 인해 사용하였던 재료들에 의해 전체

적으로 따뜻한 이미지만 남게 된 것 같아 아쉬움을 주었다. 본 오브제와 수제종이의 활용을 좀 더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인은 제작 방법으로 인한 표현 기법으로 수제종이와 펄프 캐스팅의 관화적 요소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업 세계를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매체와 재료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나래. 「북아트」, 서울: 임프레스, 2003.
-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채원사, 1995.
- 이승철. 「종이만들기」, 서울:학고재, 2001.
- 이 일. 「현대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서울:열화당, 1991.
-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학고재, 1998.
- 조기주. 「이것도 예술이야」, 현암사 2004.
- 최병기. 「현대미술 구조론」, 서울:승례문, 1990.
- 김성원. 「월간미술」 2004년 6월호

ABSTRACT

The aspects of modern society in waste-wrapper casting

An, Mi Ok
Major in Media · Print
Dept.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s and analyzes the formal and conceptual aspects of ' ' series, scraps of wrapper-pulp casting works for the 2004 exhibition of master degree among my works made from 2003.

The work adopted waste-wrappers from the mass-produced and consumed culture of modern society as the materials of paper casting. In modern society, people lives a busy daily life and consumes the mass produced fast foods. And they're also used to the convenience of them and enjoy the speed of them in lifestyle. Therefore, I am concentrated on the

waste-wrappers and disposable products represented the modernity such as the convenience and speed mentioned above. I thought the flourish of brands and lots of texts printed on waste-wrappers especially represented modern society people symbolically.

In addition, I regarded the waste-wrappers which are used as the materials of pulp casting works as a symbol related with our lives deeply and especially, I tried to focus on the self-reflection that the waste-wrappers represented the dark side of modernity became to garbage cans which put the wastes and also focus on the recycling aspects of materials through the cutting process of waste-wrappers and the reconstructing them into a garbage can which is able to put the disposable products.

This thesis includes this contents.

My casting works have the form of garbage can from papers and so it explores new interpretations of paper as materials.

And it also explores paper's possibilities as a art-media in general art and paper-making in printmaking.

Furthermore, I tried to study the symbolic meaning and

modernity as a stimulation adopted waste-wrappers from fast food-restaurants and the relations between waste-wrappers and mass-produced and consumed culture. And I studied the change of materiality in the process making garbage cans used waste-wrappers and the meaning of the garbage cans shown repeatedly.

Finally, I studied the way of paper casting related with the recycling of waste-wrappers, the way of expression and the unique formative- elements in my work.